

쇼펜하우어, 니체의 문장론 주요 내용 정리

jakiva@gmail.com

2023.5.28

본문 발췌

쇼펜하우어 문장론

01 스스로 생각하기

-사고와 지식

자신의 사고로 철저히 다듬은 지식이 아니라면 양은 훨씬 적어도 다양하게 숙고한 지식만큼 가치가 없다.

-독자적 사고와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

독자적 사고는 자기 자신의 충동을 따른다. 많은 독서는 정신의 탄력을 몽땅 뺏어간다.

학자란 책을 많이 읽은 자들이다. 사상가, 천재, 세상 사람을 깨우쳐주는 자, 인류의 후원자는 직접 세상이라는 책을 읽은 사람을 말한다.

-자신의 생각과 독서에서 얻은 생각

자신의 기본 사상에만 진리와 생명이 깃든다. 독서에서 얻은 남의 생각은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이나 남이 입다가 버린 옷여 불과하다.

독서는 독자적 사고의 단순한 대응품에 불과하다.

-독자적 사고의 중요성

독자적 사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생각하며,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발견하는 나침반을 갖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사고의 샘이 막혀 버렸을 때만 독서를 해야 한다.

책을 집어 들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쫓아 버리는 사람은 말린 식물 표본을 보려고, 또는 동판화 속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야외에서 도망치는 사람과 같다.

(독자적 사고를 해야만) 진리는 불가결의 부분이자 살아있는 구성 요소로 우리 사고의 전체 체계에 들어와서, 그 사고 체계와 완전하고 확고한 관련을 맺으며, 그 근거와 결론이 모두 이해되어 우리의 전체 사고방식의 색깔, 색조, 특징을 띠기 때문이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소유하려면, 그대가 그것을 획득하라.”(괴테, <파우스트>, 682행)

단순히 습득한 진리는 마치 의수, 의족, 의치, 밀랍으로 만든 코/ 독자적 사고로 얻은 진리는 수족과 같다.

-자기 머리로 사고하기

독서란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학문적 사상가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하겠지만, 그의 정신은 이 모든 일을 해내고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자신의 사상 체계에 병합함으로써, 끊임없이 커지는 자신의 웅대한 통찰력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체에 그 지식을 종속시킬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다.

-스스로 생각해서 얻은 지혜가 독서로 얻은 지혜보다 낫다.

독서로 일생을 보내고 여러 가지 책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여행 안내서를 잔뜩 읽고 어느 나라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은 사람과 같다. 일생을 사고하며 보낸 사람은 직접 그 나라에 갔다 온 사람과 같다.

-독자적 사고를 하는 사람과 책에만 매달리는 철학자

책에만 매달리는 평범한 철학자와 독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의 관계는 역사 연구가와 목격자의 관계와 같다

-책상머리 바보

독자적 사고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다. 생각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라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야 한다. 역지로 생각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각할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구체적인 현실 세계의 중요성

독서할 때보다 현실 세계를 바라볼 때 독자적 사고를 할 계기와 기분이 훨씬 빈번히 일어나므로 책을 읽느라 현실 세계의 모습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경험도 독서와 마찬가지로 사고를 대신하지 못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기

제1급의 정신을 가진 소유자들의 특징적인 자질은 모두 직접 판단을 내린다는 점이다. 그들은 독일 제국에 직속된 영주들 처럼 정신의 제국에 직속되어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영주에 예속되어 있다.

진정으로 독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군주와 같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며, 자신을 넘어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의 판단은 군주의 결정처럼 자신의 절대적 권력에서 유래하며, 자기 자신에게서 직접 출발한다.

-생각을 연인처럼 잡아 두어라

현재 어떤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눈앞에 연인이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이 연인이 결코 무관심해질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안 보면 잊어버리는 법이다! 아무리 멋진 생각이라도 적어 두지 않으면 완전히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

-진정한 사상가와 소피스트

자기 자신을 위해 생각한 것만 진정한 가치가 있을 뿐이다. 사상가는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사고하는 사람과, 남을 위해 사고하는 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가 진정한 사상가이며, 단어의 이중적 의미에서 독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자인 것이다.

-생각하는 존재

애매하고 괴로우며 덧없는 꿈같은 생존의 문제는 너무나 크고 절실하다.

몇몇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사람은 이런 문제를 분명히 의식하지 않으며, 심지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인간은 매우 넓은 의미에서만 생각하는 존재로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02 글쓰기와 문체

-두 종류의 저술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저술가가 있다. 사물 그 자체 때문에 쓴 사람과 쓰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 그것이다. 전자는 어떤 생각을 지났거나 경험을 해서 그것을 전달할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후자는 돈이 필요해서 돈 때문에 글을 쓴다. 이들을 글을 쓰기 위해 생각한다. 이들의 글에는 단호함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원고지를 메우기 위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독자를 속이는 셈이다.

“명예와 돈은 같은 자루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스페인의 격언은 옳다.

-저술가의 세 가지 유형

세상에는 세 부류의 저술가가 있다.

사고를 하지 않고 글을 쓰는 사람: 기억과 추억을 바탕으로 하거나, 남의 책을 이용해서 글을 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가장 많다.

글을 쓰면서 사고하는 사람: 쓰기 위해 사고한다. 그 수는 매우 많다. 운을 하늘에 맡기고 떠나는 사냥꾼에 비유할 수 있다. 사냥을 많이 하고 집에 돌아오기란 어려울 것이다.

사고하고 나서 쓰는 사람: 사고를 했기에 글을 쓸 뿐이다. 매우 드물다. 이들의 글쓰기는 물이사냥과 같아서, 짐승이 이미 우리 속에 잡혀 들어가 있으므로 사냥꾼은 목표를 정하여 쏘기(서술)만 하면 된다.

미리 생각하고 글을 쓰는 소수의 저술가들 중에도 사물을 자체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 외의 사람은 단지 최이나 다른 사람이 이미 말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뿐이다.

극소수의 사람은 사물 자체를 통해 생각하도록 자극을 받는다. 그들은 직접 사물 자체를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에 한 말이 항상 옳은 말이고, 나중에 쓴 글은 모두 이전에 쓴 것을 개선한 글이며, 모든 변화가 진보라고 믿는 것만큼 큰 잘못은 없다.

사고하는 두뇌의 소유자,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 진지하게 사안을 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외에 불과한 반면, 세상 어디서나 버려지 같은 인간이 일반적 규칙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가르침을 얻으려는 자는, 학문이란 언제나 진보한다고 전제하거나, 이 책을 쓸 때 이전의 책들을 인용했으리라 전제해서 대뜸 그 문제를 다른 최신 서적만 움켜잡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번역가의 문제점

저자의 글을 고치는 동시에 가공하기도 하는 번역가가 있다. 나는 그런 행동을 늘 주재념한다고 생각한다. 그대 자신이 번역할 가치가 있는 책을 써라.

-제목의 중요성

책의 제목이 필요한 이유는 독자가 책의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책의 제목은 눈에 띄는 특징을 지녀야 한다.

책의 제목은 본질적으로 짧으므로 간단하고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될 수 있는 한 책 내용의 모노그램 역할을 하게 된다.

가장 나쁜 제목은 도용한 제목이다. 첫째로 표절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저자에게 독창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음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정직하지 못한 저술가

비양심적으로 남의 글에서 인용한 것을 자기 글에 써먹는다. 때로는 부주의해서 남의 글을 위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소재의 가공, 즉 형식의 중요성

저서는 저자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복제품 이상일 수 없다. 사상의 가치는 소재, 즉 저자가 생각한 대상에 있거나 형식, 즉 소재의 가공, 그러므로 저자가 생각한 내용에 있다.

모든 경험적 소재,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적 사실은 모두 사고의 대상에 속한다.

저자가 생각한 대상이 문제 되는 경우 고유한 특색은 객관에서 비롯된다. 그 때문에 저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저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저자가 생각한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 고유한 특색은 주관에서 비롯된다. 대상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고 알려진 소재일 수 있다. 그러나 대상을 파악하는 형식, 즉 저자가 대상을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가치 있으므로, 이때 중요한 것이 주관이다. 따라서 어떤 저서가 이런 점에서 탁월하고 비길 바 없었다면 저자 역시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입을 만한 저서를 발간한 공로가 클수록 소재의 덕을 입는 경우가 적어지고, 때로는 심지어 이 소재가 그만큼 잘 알려지고 진부한 경우인 것이 그 때문이다. 예컨대 그리스의 위대한 3대 비극작가들은 모두 같은 소재를 가공한 것이다.

형식이 중요한 경우, 그러므로 동일한 소재를 대하는 사상가의 능력이 행위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만이 입을 만한 저서를 내놓을 수 있다.

독자는 형식보다 소재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므로, 기대한 만큼보다 높은 교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된다.

소재와 형식의 구별은 대화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이런 대화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은 우선 분별력, 판단력 기지 및 생동감이다. 이런 것들이 대화의 형식을 부여한다. 하지만 그다음에는 대화의 소재, 즉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화제인 지식이 고려될 것이다. 이런 지식이 매우 형편없을 경우 높은 정도의 형식적 특성만이 대화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반대로 형식적 특성이 부족한 경우 그 어떤 종류의 지식이 대화에 가치를 부여한다.

-언어의 발견과 사고의 중단

어느 사상의 본래적인 삶은 그 사상이 언어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만 지속될 뿐이다.

사고가 언어를 발견하는 즉시 사고는 이미 더 이상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깊이깊은 근저에서는 진지하도 않다. 사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경우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가기를 멈춘다.

-펜과 지팡이

펜이 사고에 하는 역할은 지팡이가 걷는 데 하는 역할과 같다. 그러나 지팡이 없이 걷는 것이 가장 가벼운 발걸음이다. 가장 완전한 사고는 펜 없이 일어난다. 나이가 들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인간은 지팡이와 펜을 즐겨 이용한다.

-가설과 유기체

가설은 한때 자리 잡고 있었거나 태어난 두뇌에서 살아간다. 가설은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에게 자양분이 되는 것과 동질적인 것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유기체의 삶과 비슷하다. 반면에 자신에게 이질적인 것이나 해로운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풍자의 대상

풍자란 대수학처럼 추상적이고 불안정하며 구체적이지 않은 가치나 위대하다고 알려진 대상을 다루어야 한다. 해부학적 살아 있는 인간을 풍자해서는 안 된다.

-불멸의 작품이 되려면

언제나 이런 탁월함은 이런 독자에 의해, 저런 탁월함은 저런 독자에 의해 인정받고 승배된다.

-그릇된 주의나 작품

거의 모든 시대에 예술은 물론 문학에서도 그릇된 주의나 방식 또는 작품이 유행하고 경탄을 받는다. 통찰력이 있는 자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경멸한다.

-조잡한 문학의 해악

머리가 텅 빈 악당들이 텅 빈 지갑을 채우려고 마구 휘갈겨 쓰는 바람에, 출간되는 도서의 90%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다. 조잡한 문학을 경멸하는 것은 훌륭한 문학에 대한 의무이다. 사회생활에서는 필요한 예의가 문학에서는 이질적인 요소이며, 너무나 자주 해로운 요소이다.

-익명과 가명의 문제점

부정직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문학계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활용되는 방패, 즉 익명이 폐지되어야 한다.

루소는 <신 엘로이즈(1761)>의 서문에서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쓴 글에 서명을 한다”라고 말했다.

-익명의 비평가는 사기꾼

익명으로 하는 비평은 모두 거짓말과 사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반론을 펴는 익명의 비평가를 모두 즉각 비열한 악당이나 개자식이라고 불러야지, 몇몇 작가들이 (……) 그러는 것처럼 “존경하는 비평가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나라면 익명의 비평가 소굴을 맡아서 경영하느니 차라리 도박장이나 유곽의 대표가 될 것이다.

-문체와 관상

문체는 정신의 관상이다. 정신의 관상은 신체가 주는 인상 이상으로 진실하다.

타인의 문체를 모방하는 것은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것과 같다. 가면은 생명이 없다.

생기 있는 얼굴이 가면보다 낫다.

허세를 부리는 문체는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문체의 독자성

사고의 방식, 그 사고의 이런 본질적인 성질과 일반적인 질의 정확한 복제물이 그의 문체이다. 다시 말해 문체는 한 인간 지닌 모든 사상의 형식적인 성질이다.

문필가가 무엇에 대해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든 언제나 문체는 똑같아야 한다. 문체는 반죽과 비슷하다.

평범한 문필가는 자신에게 고유하고 자연스러운 문체를 숨기려고 한다. 소박함은 자신이라는 존재를 자각하므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우월한 정신의 소유자들의 특권으로 남는다.

-평범한 저술가의 글쓰기

평범한 저술가들은 자신의 생각을 때로는 조금씩 짧고 다의적이며 역설적인 잠언으로 내던진다.

그들은 마음대로 어떤 글쓰기 방법을 상정해서 그것을 고상하다고 간주하며 전력을 기울인다. 예컨대 철저하고 학구적인 글쓰기 방법 말이다

길게 늘어지고 깊은 생각이 결여된 복합문은 마약과 같은 효과를 내며 읽는 사람을 죽도록 고문한다.

“태산명동에 서일필” nascetur ridiculus mus 크게 떠벌리기만 하고 실제의 결과는 작은 것 (호라티우스 시론 138~9행)
새롭거나 새로운 의미로 사용된 표현, 관용구, 각종 합성어에 의해 정신의 외관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다. 정신의 부족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끼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글쓰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글을 쓰는 것만큼 쉬운 것은 없다. 반대로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친근하게 여겨진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때 지력이 필요한 것이다.

“현명해야 올바른 글을 쓸 수 있다.” (호라티우스, <시론>)

더 많은 지력을 보이려는 가시적인 노력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다.

단순함은 언제나 진리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천재의 특징이기도 했다. 문체는 사상의 아름다움을 보존한다.

사이비 사상가들의 경우처럼 문체를 통해 사상을 아름답게 꾸미려 해서 안 된다. 문체는 사상의 단순한 실루엣에 지나지 않는다.

좋은 문체의 첫 번째, 그 자체만으로 거의 충분한 규칙은 무언가 말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이런 방식은 불확실하고 애매한, 극다의적인 문체, 또한 장황하고, 둔중하며, 딱딱한 문체를 만드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무언가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을 지닌 자는 그것을 몇 부린 표현, 난해한 용어, 애매한 암시로 은폐할 필요가 없다.

-간결한 문체, 구체적인 표현

풍부한 사상을 지닌 훌륭한 문필가는 무언가 말할 게 있어서 말을 한다는 신뢰를 금방 독자로부터 얻는다.

문필가는 실제로 무언가 말할 것이 있으므로 언제나 가장 간결하고도 단호한 방식으로 표현할 것이다.

“나의 사상은 항상 밝은 대낮에 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시는 좋은 나쁜 항상 무언가를 말하노라

(부알로 Nicolas Boileau, 1636~1711, 프랑스 고전문학 이론의 대표자)

말이 많은 자는 결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싫증 나고 지루한 저작물

독일 문필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일으키다', '야기하다'를 사용해야 할 경우 대개 '제약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특히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런 동사는 앞의 두 동사보다 더 추상적이고 불확실하며 애매하게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평범한 두뇌의 소유자들) 언제나 흐리멍덩한 의식으로 말한다라는 점이다.

반대로 지력을 갖춘 사람들은 그들의 글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을 건다. 그들은 우리를 고무시키고 즐겁게 해 줄 수 있다. 같은 차이를 음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천재의 작품은 어느 부분에서나 항상 정신이 감지되며, 그런 사실이 천재의 작품을 특징짓는다.

-객관적인 지루함과 주관적인 지루함

지루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객관적인 지루함은 언제나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전달할 완전히 명료한 사상이나 인식이 저자에 전혀 없을 경우에 생겨난다. 그런 것을 지닌 저자는 그것을 전달하려는 목표에 곧장 매진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어디든 명백히 표현된 개념을 전달하고, 따라서 장황하지도 내용이 없지도 혼란스럽지도 않기에, 따라서 지루하지 않다.

반면에 주관적인 지루함은 단순히 상대적인 지루함이다. 독자가 저자의 글에 관심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독자의 관심이 협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탁월한 글에도 어떤 글이든 주관적으로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형편없는 글이라도 어떤 글이든 주관적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평범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비범한 사상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실생활에서 어리석음이 위엄과 허례허식으로 나타나듯 책에서는 정신의 빈곤이 종종 그런 몇 부린 문체로 나타난다.

진정한 신사는 아무리 허술한 복장으로 다녀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다.

말하는 투로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오히려 모든 문어체는 비문의 문체와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어야 한다. 비문에 새겨진 글이야말로 모든 글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글을 쓰려는 것처럼 말을 하려는 것 역시 그 반대만큼이나 비난할 일이다.

-표현이 모호하고 불명료한 문장

표현이 모호하고 불명료한 문장은 언제 어디서나 정신적으로 매우 빈곤하다는 반증이다.

심중팔구는 사상이 불명료한 때문이며, 사상이 불명료한 것은 다시 거의 언제나 사상의 원래적인 부적절, 모순, 즉 오류에서 기인한다.

알쏭달쏭한 표현을 삼가야 하며, 나의 사실을 말하려 하는지, 또는 말하지 않으려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언어 역시 사상을 파악하기 쉽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것의 효용도 어느 정도까지만 그러하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면 언어는 전달해야 할 사상을 다시 점점 모호하게 만든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문체의 임무이며 판단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테르는 “형용사는 명사의 적이다”라고 말한다.

-간결한 표현의 중요성과 잘못된 간결함

저술가는 독자의 시간과 노력, 인내력을 낭비시켜서는 안 된다.

차리리 좋은 글이라도 문맥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생략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절반이 전체보다 낫다”는 헤시오도스의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말만큼 저술가가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독자를 지루하게 만드는 비결은 모든 것을 다 말해 버리는 데 있다.”(볼테르의 <인간론>)

얼마 안 되는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어디서나 평범함을 드러내는 징표이다. 반면에 탁월한 두뇌의 소유자는 많은 사상을 얼마 안 되는 말로 마무리 짓는다.

진리는 적나라할수록 더없이 아름답고, 그것이 주는 인상은 간단한 표현일수록 더욱 심오하다. 첫째로 그래야 진리는 부적인 사상에 의해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독자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래야 독자는 수사적 기교에 농락당하거나 기만당하지 않고, 전체 효과가 사실 자체로부터 시작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가 허망하다는 진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읊의 말보다 어떤 열변이 더 깊은 인상을 남기겠는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고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유포기 14장 1절)

불필요한 수사적 장식, 쓸데없는 부연, 과잉 표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순결한 문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내용 없는 것은 과장과 허식, 우월함과 고상함의 어조, 수백 개의 다른 형식으로 자신을 은폐한다.

간결한 표현을 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말할 가치가 있는 것만 말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 반면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

문법은 말할 것도 없이 명료함도 간결함에 희생시키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간결함의 잘못된 점은 목적달성에 도움 되는 것, 즉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필요한 것을 생략해 버린 데 있다.

-명확하고 정확한 표현

표현을 명확하고 정확히 하려면 사상의 모든 뉘앙스나 변조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언어에 가치를 부여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상을 자루 속이 아닌 적은 의복 속에서처럼 나타나게 해야 한다.

-잘못된 문법

문법, 언어 사용, 의미와 상식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바보는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써버린다.

그들은 말하는 내용을 되도록 줄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언어를 줄이는 방법으로 전혀 다른 절차가 요구된다.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사고하는 절차

-올바른 구두법

일부러 아무렇게나 구두점을 찍는 것은 불법행위나 마찬가지다.

어떤 단어가 어느 문장에 속하고, 어떤 단어가 다른 문장에 속하는지, 충분한 구두법으로 독자가 문장을 즉각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단어나 문장의 형태를 축소시켜서는 안 되고 사상을 풍부히 하는데 힘써야 한다.

-빈번해지는 문체의 결점

문체는 주관적이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작가는 독자와 대화를 하듯 글을 써야 한다. 상대방의 질문이 들리지 않는 만큼 그럴수록 더욱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작가는 사상이란 종력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만 한다. 머리로 생각한 사상을 종이에 옮기는 것이 종이에 쓰인 것을 머리에 옮기는 것보다 훨씬 쉽다.

(글에서 형상이 아니라 얼룩을 본다)

-나쁜 문체는 독자에 대한 모독이다

플라톤은 일곱 번이나 다르게 수정해서 자신의 저서 <국가>의 서문을 작성했다고 한다.

성의 없이 글을 쓰는 자는 자신의 사상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언어 파괴 현상

Frau(아내)- Weib(여자)

사물의 효용성은 단어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다.

-빠른 템포의 폐해

대부분의 작가들은 도미노 게임을 하듯 글을 쓴다.

많은 작가들은 산호충이 집을 짓듯 글을 쓴다.

문학에서의 빠른 템포는 극단적인 신속함과 불성실함으로 드러난다.

-복합문 허약한 구조

인간이 한 번에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생각뿐이다. 문장론의 이러한 으뜸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독일인의 진정한 민족성은 둔중함이다. 특히 문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복합문을 읽으려면 시계를 보고 시작해야 한다. 복합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기억력이 탁월해야 한다. 오히려 ; 성과 판단력이 필요할 텐데 말이다. (독일작가의 무분별한 복합문에 대한 풍자)

어떤 생각을 나무 십자가처럼 다른 생각에 걸쳐 놓는 것은 분명 모든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분석적 판단의 문제점

분석적 판단은 설명이나 정의가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뿔을 지닌 황소,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는 의사)

-비유

비유는 미지의 관계를 기지의 관계로 환원시킬 때 큰 가치가 있는 표현법이다.

모든 개념 형성은 기본적으로 비유에서 출발한다. 여러 사물의 비슷한 점을 파악하고 비슷하지 않은 점을 내버리는 것에 개념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이해를 막론하고 이해란 결국 관계의 파악이 그 본질인 것이다.

상이한 경우나 완전히 이질적인 사물들 사이에서 같은 관계를 인식하는 경우 모든 관계를 더욱 분명하고 순수하게 파악할 것이다. (관계의 모든 종류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며 보다 깊고 완전한 인식을 하게 된다)

비유는 인식을 위한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놀라우면서도 적절한 비유를 내세우는 것은 깊은 지성의 증거이다.

비유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일이다. 비유만은 다른 삶에서 배울 수 없으며, 그것은 천재적인 천성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좋은 비유를 들기 위해서는 같은 성질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철학에서도 확연히 다른 사물에서조차 같은 성질을 발견하는 것은 명민함의 징표이다.” (수사학)

-문법의 창조와 언어 파괴

(문법은) 인간의 사고를 완전하고 합당하게 표현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실질적 수단을 가지려는 고상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어는 일종의 예술품이므로 객관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언어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말하는 바를 다른 사람도 어쩌면 알아맞힐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며 임시변통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책과 글 읽기>

-무지한 부자는 짐승과 같다

무지한 부자는 단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만 살아가며, 그런 자는 짐승과 같다.

-생각하지 않는 독서

독서란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생각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학생이 글쓰기를 배울 때 선생이 연필로 그려 놓은 선을 따라 펜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

책을 읽는 동안에는 우리의 머리는 실은 타인의 생각이 뛰어노는 놀이터에 불과하다.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를 망치고, 따라서 몸 전체를 해치는 것처럼, 정신도 자양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영양 과잉으로 질식해 버린다. 책을 많이 읽을수록 그만큼 읽은 흔적이 정신에 적어지기 때문이다.

되새겨야만 읽은 것이 자기 것으로 된다.

끊임없이 책만 읽고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읽은 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대부분 사라지고 만다.

종이에 적힌 생각은 모래 속에 남은 보행자의 발자국과 다름없다.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은 알 수 있지만, 그가 길을 걸으며 무엇을 보았는지 알려면 자기 자신의 눈을 사용해야 한다.

-독서의 역기능

저술가에게는 예컨대 설득력, 다양한 비유 능력, 비교의 재능, 표현의 대담성이나 신랄함, 간략함이나 우아, 경쾌함, 그리고 기지, 대조의 수완, 간결한 표현과 소박함 등과 같은 특성이 있다.

이런 재능을 지닌 저술가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서는 우리 자신이 지닌 천부적 재능의 사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런데 이때 언제나 천부의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양서와 악서

문학의 세계도 인생과 다르지 않다. 어디로 눈을 돌리든 즉각 교정 불능의 천민무리를 만날 수 있다.

통속 소설을 읽는 독자들의 운명만큼 한심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의 독서법에서 보자면 읽지 않는 기술이 극히 중요하다. 그 기술이란 늘 좀 더 많은 독자의 관심을 끄는 작품을 그 때 문에라도 곧장 손에 쥐지 않는 데 있다.

언제나 소수이긴 해도 시대와 민족을 막론하고 나머지 인류보다 위대하고 탁월한 정신의 소유자이므로 그 자체로 명성이 자자한 작가의 작품만 읽도록 하라.

악서는 정신의 독약이기에 정신을 파멸시킨다. 양서를 읽지 않기 위한 조건은 악서를 읽지 않는 것이다.

-고전을 읽어라!

“열심히 고전을 읽어라, 진정으로 참된 고전을!

최근에 나온 글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

고전을 읽어라! 참으로 가장 오래된 고전을

현대인이 칭찬하는 글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 (슐레겔 <고대연구>)

(나는 이미 젊은 시절 슐레겔의 멋진 경구를 접하고, 나의 좌우명으로 삼게 된 운명에 감사하고 있다.)

일반 독자는 매년 평범한 졸작, 매년 파리 떼처럼 무수히 생겨나는 졸작을 읽으려 한다.

-참된 저작물과 엉터리 저작물

학문이나 시문학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해 쓰인 참된 저작물은 진지하고 조용하지만 발걸음이 매우 더디다. 그래서 영원히 존속한다.

방법이를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의해 쓰인 저작물은 바른 속도로 내달린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진다. 참된 저작물은 영원한 저작물이다.

-올바른 책의 선택

누구나 자신의 사고체계나 그것의 목적에 맞는 것만을 간직한다.

누구에게나 목적은 있지만 사고체계와 비슷한 것을 소유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에도 객관적인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독서를 해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다.

반복은 연구의 어머니다. 중요한 책은 무엇이든 즉시 두 번 읽는 게 좋다.

작품은 어떤 정신의 진수다. 작품은 정신을 훨씬 능가하고 앞지른다.

정신을 위한 청량제로는 옛 고전을 읽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두 가지 역사, 즉 정치의 역사와 문학과 예술의 역사가 있다. 전자는 의지의 역사이고, 후자는 지성의 역사이다.

정치의 역사는 대개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킨다. 정치사는 불안과 곤궁, 사기, 끔찍한 살인으로 차 있다. 반면 문예사는 길을 잘못 헤매는 경우조차 고독한 지성처럼 어느 부분이나 즐겁고 명량하다. 문예사의 주요 분야는 철학의 역사이다. 사실 철학사는 심지어 다른 역사에까지 울려 퍼져, 거기서도 밑바탕에서 견해를 이끌어가는 기본 저음이다. 철학사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문학사에 대한 고찰

학문, 문학, 예술의 시대정신은 대략 30년마다 파산 선고를 받는다. (인식의 오류와 진보)

문학사란 대부분은 실제작들의 진열장에 든 목록이다. 이것들을 가장 오랫동안 보존하게 해주는 에틸알코올 역할을 하는 것은 돼지가죽이다.

반면에 소수의 우량품은 거기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살아 있는 것이다.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의 좋은 것과 참된 것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불합리며 열악한 것과 맞서 견뎌내야 했던 저 끝없는 싸움.

-소설을 읽을 때 주의할 점

실천적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연구는 세상이란 참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지식을 얻는 것이다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

사물에 대한 인식 자체를 얻는 것도 어려운데 소설을 읽음으로써 그 어려움이 배가된다.

소설을 사실로 믿게 되면 소극적 무지 대신 그릇된 전제로 복잡하게 얽힌 관점이 적극적 오류로 등장한다. 심지어 경험 자체의 학교를 혼란시키고, 그 가르침을 거짓으로 보이게 한다.

(청년들, 특히 소녀들)

<박식함과 학자에 대하여>

-통찰의 중요성

대학생은 지식을 얻으려 하지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훌륭한 저술가

많은 독서와 배움이 자신의 사고를 중단시키듯이 많은 글쓰기와 가르침도 지식과 이해의 명확성과 철저함의 습관을 자연히 버리게 한다. 이를 얻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훌륭한 요리사란 낡은 구두 밀창을 가지고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도 하듯이 훌륭한 저술가는 무미건조한 주제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

-학자의 본분

그 자체 때문에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냥 대충 하기 쉬운 것이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그 이외의 다른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그 자체 때문에 만들어낼 때 진정으로 탁월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타인의 인식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의 직접 목적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얻는 자만이 새롭고 위대한 기본 통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소화시키지 않고 내보낸 배설물이 아닌 자신의 피에서 분비된 젖만 다른 사람에게 양분이 될 수 있다.

-가발과 학자

가발은 순수한 학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잘 선택된 상징이다. 그것은 자신의 머리칼이 부족할 때 남의 풍부한 머리칼로 머리를 꾸며 준다. (남의 생각을 잔뜩 집어 넣은 박식함)

스텐 “1온스의 정신은 다른 사람 정신의 한 통만큼이나 가치가 있다” <트리스트럼 샌디>

가장 완전한 박식과 천재의 관계는 식물 표본실과 상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영원히 심상하며 영원히 젊고 영원히 변하는 식물계의 관계와 같다.

-딜레탕트와 전문가

딜레탕트에게 그 일이 목적이고, 전문가 자신에게 수단에 불과하다. 그 일을 직접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때문에 그 일에 몰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자만이 매우 진지한 자세를 가질 것이다.

항시 가장 위대한 일은 그런 자에게서 시작되지 임시 고용인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

괴테도 색채론 분야에서 딜레탕트였다.

-어리석음은 인간의 권리다

인간은 어리석고 열등해도 괜찮다. : 어리석음은 인간의 권리다. 반면에 어리석고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범죄이고, 불쾌한 행위다.

교양 대중은 소설, 희극이나 시가 아닌 것은 쳐버린다. 대중은 전문가들의 보증을 기다린다.

전문가들은 어떤 일로 밥벌이하는 자들.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혼동한다.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자는 그 학문을 이해하고 그것에 진지하게 임하는 자가 아니기에 그와 같은 학문을 가르칠 시간이 남지 않는다.” 디드로 <라모의 조카>

학문은 그들에게 “버터를 공급해 주는 유용한 암소인 것이다.” 실러 <학문>

-학자 공화국의 실상

각자 명성을 얻기 위해 자신만 인정한다. 그들 모두가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보는 경우는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도록 할 때다.

-교수와 독립적인 학자

개와 늑대의 관계

-전공학자와 천재의 관계

지식 중에서 대부분은 종이에 기록된 인류의 기억인 책 속에서 존재한다. 모든 특정한 시점의 사람들 머릿속에 실제로 살아 있는 것은 그 기억 중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인류 개개인은 모두 매우 한정된 불완전한 지식을 지닐 뿐이다.

상인이 장부를 싫어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자는 자신의 지식검사를 싫어한다.

전공학자는 자신의 집에 살면서 결코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다.

집 밖의 모든 것은 그에게는 낯선 미지의 것이다. 인문주의의 참된 교양은 다방면의 지식과 개관 능력을 요구하므로, 학자에게는 좀 더 높은 의미에서 물론 뭔가 박식함이 필요하다.

일급의 정신은 생존의 전체를 문제로 삼는다.

사물의 전체와 위대함, 본질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을 자신의 업적의 주제로 삼는 자만이 천재라는 명칭을 얻을 만하다.

-라틴어의 중요성

(라틴어 서적의 독일어 번역에 대해)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튀, 빌어먹을! 너희는 구두장이나 재단사를 위해 글을 쓰는 거냐?

몸속에 더 많은 명예를 간직하라. 지갑 속에 더 적은 돈을 지니고 다녀라. 무식한 자가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몸에 차고 다니는 전대에 굽실거리지 마라.

애국심은 학문의 영역에서 세력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던져 버려야 하는 지저분한 녀석이다.

-대학생 숫자를 줄이고 자질을 향상시켜라

첫 째, 만 스무 살이 되기 전에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안되고, 학생 명부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고전어의 구술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대학생이 되면 군복무를 면제받아야 한다.

둘째, 모든 대학생은 1학년때 오로지 철학 강의를 들어야 한다. 2학년이 되어서야 전공에 들어가 신학은 2년, 법학은 3년 의학은 4년간 공부해야 한다.

<니체의 문장론>

(인간적인 것, 너무나 인간적인 것)

(정신과 사상가)

-정신을 드러내기

자신의 정신을 드러내려는 자는 누구든 그 반대의 것도 충분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노출시킨다.

-세 종류의 사상가

광천에는 팔팔 쏟아져 나오는 것, 막힘 없이 흘러나오는 것, 똑똑 떨어지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문외한은 광천을 물의 양으로 평가하고, 전문가는 물에 함유된 성분, 즉 광천 속의 물이 아닌 것에 따라 평가한다.

-선택된 사상

선택된 문체는 말뿐만 아니라 사상도 면밀히 선택한다. 더구나 말과 사상 양쪽 모두 통례적인 것과 주도적인 것에서 선택한다. ~ 나중에는 양쪽 모두에서 평범한 냄새가 나기 쉽다.

-사인의 사상

진정한 작가의 경우 진정한 사상은 모두 이집트 여인네들처럼 베일을 쓰고 돌아다닌다.

-자유로이 떠드는 정신

속박되고 확고하게 뿌리 박힌 지성

이상을 정신적인 유목 생활에서 발견한다.

-완성되지 않은 사상

완성되지 않은 사상 역시 나름의 가치가 있다.

우리는 문지방에서 있다. 우리는 보물을 캐낼 때처럼 기다리고 있다.

-불임의 이유

극히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이면서도 언제나 불임인 자들이 있다. 그것은 기질이 너무 약하거나 너무 조급한 나머지 참을 있게 임신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행자와 그 등급

여행자에게는 다섯 가지 등급이 있다. 가장 낮은 등급은 여행하면서 관찰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다. 흡사 장님과 같다. 다음 등급은 실제로 세상을 구경하는 자들이다. 세 번째 등급의 여행자는 관찰한 결과로 무언가를 체험하는 자들이다. 네 번째 등급의 여행자는 체험한 것을 체득해서 몸에 지니고 다닌다. 최고의 능력을 지닌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관찰한 것을 모두 체험하고 체득한 뒤 집에 돌아온 즉시, 또한 체험하고 체득한 것을 행동이나 일에서 반드시 발휘해 나가야 한다. 인생의 여로를 걷는 모든 인간은 이 다섯 종류의 여행자와 같다.

-깊이와 탁함

대중은 탁한 곳에서 낚아 올리는 자와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리는 자를 곧잘 혼동한다.

-가장 위험할 때

인생의 고갯길을 힘들어 올라갈 때 다리를 부러뜨리는 경우는 드물다. 편하게 살아가며 안락한 길을 선택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뮤즈의 은총

행복과 아울러 재앙을 주는 것이 뮤즈 나름의 진실한 사랑이다.

-거미 같은 세 명의 사상가

모든 철학 학파에는 다음과 같은 세 명의 사상가가 잇달아 나타난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 체액과 정액을 만들어 내고, 두 번째 사람은 그것에서 실을 뽑아 정교한 그물을 만든다. 세 번째 사람은 이 그물 속에 숨어 자기에게 걸려드는 자물을 노린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려고 한다.

-예술가의 진리감각

예술가는 진리의 인식과 관련해서 사상가보다 도덕성이 약하다. 예술가는 삶에 대한 찬란하고 심오한 해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에 가장 효과적인 전제들, 즉 환상적인 것, 신화적인 것, 불확실한 것, 극단적인 것, 상징적인 것에 대한 감각, 개인의 과대평가, 천재에게 있는 뭔가 기적 같은 것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독창적인 두뇌

진정으로 독창적인 두뇌를 특징짓는 것은 무엇일까? 뭔가 새로운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 익히 알려진 것, 구나 보았지만 간과해 온 것을 새로운 것인 양 보는 것을 말한다.

-기지

기지는 어떤 감정의 죽음에 대한 경구이다. (감정이 대상에 집착하는 한 기지는 생기지 않으며, 그 감정이 죽고 정신이 대상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기지가 생긴다)

-해결되기 직전의 순간

문제가 해결되기 직전 자신의 노력이 완전히 허사였다고 확신하고 일을 멈추는 자가 있다. 이것은 나비매듭을 풀면서 풀려기 직전 머뭇거리는 자와 같다. 바로 그때 매듭이 가장 단단히 매어졌다고 생각해서이다.

-몽상가들과 어울리기

정신적인 것치고 내게 낯선 것은 없다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정신의 세계주의

*로마시인 테렌티우스 “인간에 관한 것치고 내게 낯선 것은 없다.”-

-참기 어려운 냉기

산중에서뿐만이 아니라 학문에서도 가장 유익하고 건강한 것은 그 속에서 뿔어져 나오는 참기 어려운 냉기이다.

-왜 학자는 예술가보다 고상한가

학문은 시학보다 고상한 천성을 필요로 한다. 학자들은 보다 단순하고, 야심이 더 적고, 보다 절제하고, 보다 조용해야 하고, 사후의 명성에 조바심 내지 않아야 한다.

-너무 가까이하지 말 것

좋은 사상이라도 너무 급히 잇달아 떠오르면 오히려 해가 된다. 좋은 사상은 서로의 전망을 은폐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 장 위대한 예술가와 문필가들은 평범한 것을 충분히 사용했다.

-고전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

고전적인 성향의 정신과 낭만적인 성향의 정신은 미래에 대한 한 가지 비전을 지니고 있다. 전자의 사람들은 시대의 강함에서, 후자의 사람들은 시대의 약함에서 비전을 만들어 낸다.

-정신의 눈을 감기

평범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눈을 감은 사상가의 눈으로 생각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정신의 위계를 위해

예외를 확인하려는 사람과 법칙을 탐구하는 사람

-고상한 영혼의 표시

고상한 영혼이란 최고의 비상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상승과 하강은 그다지 하지 않지만 언제나 보다 자유롭게 빛으로 가득 찬 공기와 높이에서 사는 자이다.

-자기를 의욕하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기를 의욕하라, 그러면 자기가 될 것이다”라는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부가 가진 위험

정신을 지닌 자만이 소유물을 지니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물은 공공의 위험이 된다. 소유물 덕택으로 누리게 될 ; 유로운 시간을 사용할 줄 모르는 소유자는 끊임없이 소유욕에 사로잡힐 것이다. 무료함을 이기는 전략

부는 교양과 예술의 가면을 쓸 수 있기에 부라는 보잘것없는 본질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부는 가면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의 정신력에 관해

여성의 정신력이 가장 잘 증명되는 경우는 그녀가 한 남성과 그의 정신을 사랑해서 자신의 정신을 희생시킬 때이다. 그럼에도 역지로 남성의 성향에 이끌려 그녀의 본성에 원래 생소한 새로운 영역에서 그녀에게 즉각 제2의 정신이 다시 생길 이다.

-위대한 사랑의 원천

남성의 여성에 대한 감작스러운 정열, 깊고 내적인 열정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

관능적 이유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 남성은 여성에게서 나약함이나 도움의 필요성과 동시에 오만함을 함께 발견하면 자신의 영혼이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것과 같은 심정이 된다 즉 그는 같은 순간 감동과 모욕을 느낀다. 이런 점이 위대한 사랑의 원천인 것이다.

-둔중한 자들의 요령

둔중한 사상가는 보통 요설이나 장엄함을 맹우로 선택한다.

-사상가는 대화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참다운 경청자는 종종 간단히 대답하고, 그냥 예의 삼아 말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반면에 자신의 교활한 기억력을 발휘하여 상대방이 말할 때의 어조, 몸짓과 더불어 그가 말한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다.

-자기 자신을 알기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때때로 자신을 잃었다가 다시 발견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풍부한 정신을 갖는다는 것

풍부한 정신을 가지면 젊음이 유지된다. 하지만 이때 실제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천재의 불공정

천재는 다른 천재들이 자신의 동시대인인 경우 그들에게 가장 불공정하다. 다른 천재들이 없어야 천재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종류의 냉정함

정신의 고갈에서 생기는 냉정함과 절제에서 생기는 냉정함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전자는 기분이 언짢고, 후자는 쾌활하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글쓰기와 문체>

-잘 쓰는 법을 배우기

더 잘 쓴다는 것은 더 잘 사고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 말은 전달할 가치가 더욱 큰 것을 생각해 내고, 그것을 실제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글을 쓰거나 가르칠 때의 주의사항

문필가에 의해 전달 가능한 것만 가려서 배운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닌 문필가나 대중을 생각한다. (처음 글을 쓰는 사람의 위험)

교사) 자신을 지식의 통로로, 흔히 수단으로 간주하는 바람에 자신에 대한 진지성을 잃어버린다.

-가장 좋은 문체에 대한 가르침

문체에 대한 가르침은 독자나 청자에게 온갖 기분을 전달해 주는 표현을 얻게 하는 가르침 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한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기분에 대한 표현을 얻게 하는 가르침이다.

문체에 대한 가르침은 열정을 극복한 인간, 진심으로 감동하고, 정신적으로 즐겁고 밝으며 솔직한 인간의 기분에 대한 표현을 얻게 해주는 가르침이다. 좋은 문체는 좋은 인간에서 나온다.

-사라진 예술 준비

김나지움에서 행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라틴어 문체의 연습이었다. 그야말로 예술연습이었다.

문체연습과 서술 연습을 구별하는 것이 확실히 더 낫다. (독일어 작문에 의한 사고 연습)

문장의 걸음걸이는 저자가 지쳐 있는지 어떤지를 보여 준다. 괴테는 피곤한 경우에는 자주 구술하곤 했다.

-피하기

모든 위대한 예술가는 차량을 운전할 때 피하거나 차로를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만 전복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빵과 같은 것

모든 예술 작품에도 그 안에서 상이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뭔가 빵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예술 작품이 가끔 충분한 휴식이나 중간 휴식 없이 잇달아 계속되어, 사람들을 금방 지치게 하고 염증을 일으킨다면 비교적 오랫동안 예술을 식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장 파울(Johann Paul Friedrich Richter, 1763~1825) 독일 소설가 <티탄>

장 파울은 아는 것은 무척 많았지만, 학식은 없었다. 갖가지 예술적 기교는 통찰하고 있었지만 예술을 갖는 않았다. 거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고 여겼지만, 정작 취미는 없었다. 감정과 진지함은 지녔지만, 그것을 남에게 맛 보일 때 그 위에 역겨운 눈물의 소스를 쳤다.

그는 비로 기지가 없기 때문에 독자를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전체적으로 그는 실러와 괴테라는 부드럽고 비옥한 토지에 툭툭 새 썩썩 자라는 냄새 독한 알록달록한 잡초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그는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의 재앙, 모닝 가운을 입은 재앙이었다.

-반대되는 것도 맛보기

과거의 작품을 그것의 동시대인이 느꼈던 것처럼 즐기기 위해서는 그 작품과 두드러진 대조를 보였던 당시의 지배적인 추향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하고도 유익하게 쓰라

정동의 변화, 실행, 색채 변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저자에게 선사한다. 저자 자신이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경우, 우리 독자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의 저서에 도움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빌란트

우리는 그의 명량한 부도덕성을 견딜 수 없듯이 그의 명량한 도덕성도 견디지 못한다.

-드문 축제

내용이 담긴 간결함, 안정감과 성숙감, 이런 특성을 어떤 작가에게서 발견한다면 그대는 발걸음을 멈추고 사막 한가운데. 오랜 축제를 벌려라.

-문체와 화술

글 쓰는 기술은 말하는 자만이 갖는 표현 방식, 즉 몸짓, 강세, 어조, 눈길 등의 대체수단이 되어야 한다. 문체는 화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훨씬 까다로운 것이다.

문체는 훨씬 적은 수단으로 화술과 같은 만큼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인용할 때의 주의사항

어떤 말이나 사상도 자신의 사회에서만 살고 싶어 한다. 즉 그것이 세련된 문체의 도덕이다.

-제한과 확장

호메로스는 소재의 범위는 제한하고 축소시켰지만, 하나하나의 장면은 자체적으로 키우고 확장했다.

-단어의 냄새

단어마다 고유한 냄새가 있다. 냄새끼리의 조화와 부조화가 있듯이, 단어끼리의 조화와 부조화도 있다.

-관례

호메로스가 쓴 것의 4분의 3은 관례이다. 관례란 청중의 이해를 얻기 위한 예술수단이고, 힘겹게 습득한 공통언어이다. 예술가는 그런 공통언어로 자신의 뜻을 실제로 전달할 수 있다.

예술가는 자신의 관례의 굴레를 넘어 찬안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내놓으면서 스스로 모험을 감행한다.

-언어 개혁자에 반대해서

언어를 개혁하거나 언어에 의고 취미를 발휘하는 일, 진기한 언어나 외국 풍의 언어를 선호하는 일, 어휘를 제한하는 대신 풍부하게 하려고 하는 일, 이런 것은 취향이 미숙하거나 변질했다는 표시이다.

고귀한 청빈, 하지만 소유한 것은 보잘것없지만 대가다운 자유를 발휘하는 것이 그리스 예술가들의 특징이다. 그들은 민중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적게 소유하려고 한다.

-생각을 개선하기

문체를 개선하는 일은 생각을 개선하는 일을 뜻하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문체를 망치는 주요 요인

어떤 사물에 대해 실제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느낌을 나타내려고 할 때 언어나 모는 예술에서 양식을 망친다. 모든 위대한 예술은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감정이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냉정하게 드러낼 때 감정의 표정은 아름답게 변용하는 것 같다.

-조감(鳥瞰)

이곳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흘러드는 급류들이 하나의 깊은 구멍을 향해 돌진한다. 주위의 숲으로 덮인 산비탈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도망치는 것 같다.

이런 지역은 도저히 그림으로 그릴 수 없다. 새처럼 공중을 떠돌며 내려다보고 있다면 몰라도.

조감은 예술적인 자유 재량이 아니라 유일한 가능성인 것이다.

-과감한 비유

과감한 비유가 문필가의 경솔함의 증거가 아니라면 그것은 그의 상상력이 피곤에 지쳤다는 증거이다. 어떤 경우이든 그런 비유는 문필가의 취향이 조악하다는 증거이다.

-쇠사슬 달고 춤추기

그리스의 모든 예술가, 작가, 문필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그가 자신에게 부과하고, 그가 동시대인에게 매력적으로 만든(그래서 모방자를 낳은) 새로운 구속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발명'(에콘대 운율상의)으로 불리는 것은 언제나 자신을 얽매는 그런 족쇄이기 때문이다.

'쇠사슬 달고 춤추기', 즉 자신을 힘들게 만든 다음 경쾌함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들의 곡예이다.

-불명의 문체

투키디데스나 타키투스 모두 그들 작품을 완성하면서 불명의 작품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사상을 소금에 절여서, 다른 한 사람은 바짝 졸여서 영속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미지와 비유에 반대해서

이미지와 비유로는 설득할 수는 있어도 증명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과학) 표현방식과 장식 없는 벽을 통해 차디찬 불신을 도발한다. 불신은 확실한 황금을 증명하기 위한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거창한 문체와 보다 높은 것

인간은 쉽고 소박하게 쓰는 것보다 거창하게 쓰는 법을 더 빨리 배운다.

-너무 많고 너무 적다

“나는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자는 멍청이다.

-글을 쓴다는 것과 승리하려고 하는 것

글을 쓴다는 것은 언제나 승리를 알리려는 것이어야 한다. 더구나 타인의 이익이 되도록 전달하며 자기 자신의 극복을 알리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소화불량증의 저자가 있다. 이들은 무엇인가 그들의 위에 걸려 있을 때만 글을 쓴다. 이들은 타인에 대해 승리하고 한다.

<독자와 저자>

-애처로운 저자와 진지한 저자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를 쓰는 저자는 애처로운 저자가 된다. 그러나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 그리고 지금은 어째서 기뻐하며 편히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작가는 진지한 저자가 된다.

-저자들의 충만함

훌륭한 저자가 마지막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 충만함이다. 가장 좋은 경우마는 승리를 거둔 후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때까지 여원 상태로 있는 것이다.

-병약의 효용

자주 앓는 사람은 그만큼 자주 건강을 회복하는 까닭에 건강한 상태를 훨씬 크게 향유한다.

병약한 문필가들의 저작은 건강에 대한 훨씬 확실하고도 균형 잡힌 색조를 띠곤 한다. 그들은 정신적 건강과 쾌유의 철학 및 그 스승, 즉 오전, 햇빛, 숲과 샘물에 통달해 있기 때문이다.

-현대 예술에서의 감성

관객이나 청중의 감성은 예술가의 감성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양자는 기껏해야 한 점에서만 서로 만나게 된다.

-예술에 관해 바라는 것

어떤 이는 예술에 의해 자신의 본질을 즐기려 하고, 다른 이는 예술의 도움을 빌려 때때로 자신의 본질을 넘어,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천재와 졸작

예술가들 중에서 자신에게서 파내는 독창적인 두뇌의 소유자들은 사정에 따라 완전히 공허하고 진부한 것을 만들어 낼지 모른다. 반면에 보다 종속적인 천성의 소유자들, 소위 재사들은 온갖 좋은 것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럭저럭 괜찮은 것을 만들어 낸다.

-학문에 대한 관계

자기 자신이 학문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야 비로소 학문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학문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기지

가장 기지에 넘치는 저자는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독자의 정신을 거스르는 죄

저자가 단지 독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자신의 재능을 부정하면, 그는 독자가 결코 용서하지 않는 유일한 죽을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저자는 인간에게 온갖 험담을 해도 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는 인간의 허영심을 다시 세워줄 줄 알아야 한다. (?)

-최상의 저자

문필가가 되기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최고의 저자가 될 것이다.

-뛰어난 소설가는 서툰 설명자

뛰어난 소설가의 경우 종종 경탄할만한 심리학적 확실성과 수미일관성은, 이러한 요소가 소설 인물들의 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 그의 심리학적 사고의 미숙함과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대조를 이룬다.

-너무 가깝고도 너무 먼

독자와 저자를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저자가 자신의 주제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거의 너무하다고 여겨, 자신이 수없이 많이 알고 있는 사례를 생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자는 그 문제가 낯설기에, 사례가 주어지지 않으면 곧잘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여긴다.

-운율의 희생하는 저자

훌륭한 문필가는 더 잘 알려진 운율이 더 낫다고 생각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수월하게 해 준다. 현대의 독자에게 운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는 이미 적지 않은 한숨을 자아내게 했다.

-모방

나쁜 것은 모방으로 명성을 얻고, 좋은 것은 모방으로 명성을 얻는다. 예술의 영역에서는 그러하다. (?)

-격언에 대한 찬사

훌륭한 격언은 시대의 이빨에 씹히기는 너무 단단하다.

-최악의 독자

최악의 독자는 약탈 병사처럼 행동하는 자들이다.

-좋은 문필가의 특징

좋은 문필가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경탄받기보다는 오히려 이해되기를 선호한다. 또한 그들은 신랄하고 너무 예리한 독자를 위해 애쓰지 않는다.

-주정역할을 하는 작가

정신도 포도주도 아니면서 주정역할을 하는 문필가가 더러 있다. 그들은 불타올라서 남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다.

-선택된 현실

훌륭한 산문 작가는 일상용어에 속하는 말만을 취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상 용어의 모든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바로 이 때문에 선택된 문체가 생긴다.

그(미래의 훌륭한 시인) 현실만을 취하지만, 모든 현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현실만 취하는 것이다!

-예술은 무엇으로 자기편을 만드는가?

그 밖의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은-자연의 유기적인 형성과 성장을 모방하는 것은-이 경우 물 위에 씨를 뿌리는 격이다.

-승리하려는 마음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역량 이상을 하려는 예술가는 엄청난 분투 정신을 보임으로써 결국 대중을 매혹할 것이다. 성공이란 반드시 승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승리하려는 마음에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

분별 있는 저자는 어떤 다른 후세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세, 즉 자신의 만년을 위해 쓴다. 그때 가서도 자기 자신에게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독일 고전작가란 존재하는가?

괴테는 '민족문학'보다 높은 문학 장르에 속한다. 그는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을 뿐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 있다.

괴테는 훌륭하고 위대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다. 괴테는 독일인의 역사에서 다음 이야기가 없는 하나의 에피소드이다.

(이 미덕은 높은 숲이 되어 그들의 묘지위로 경외심의 그림자 옆에 망각의 그림자를 넓히고 있다)

고전작가란 지적이고 문학적인 미덕을 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의 완성자이자 가장 높은 데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다.

-저승 행

나도 오디세우스처럼 저승에 다녀왔다. 나는 몇 사람의 망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수양을 제물로 바쳤을 뿐 아니라 자신의 피도 아끼지 않았다. 나의 제물을 받아 준 네 쌍의 사람은 에피쿠로스와 몽테뉴, 괴테와 스피노자, 플라톤과 루소, 파스칼과 쇼펜하우어였다.

나는 이들로부터 내 생각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려 했다.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살아 있는 사람들이 내게는 가끔 그림자처럼 보일 때도 있다. 것처럼 창백하고 언짢은 모습으로, 그토록 불안하게.

<책과 글 읽기>

-양서는 때를 기다린다.

모든 양서는 세상에 나왔을 때 떴은맛을 낸다. 양서는 신기함이란 결점을 지니고 있다.

세상사람들은 모두 저자와 그의 책을 혼동한다.

양서에 담긴 정신, 감미로움, 찬란한 금빛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라나는 세대, 그 뒤에는 옛 세대, 이윽고 후대에 전승된 세대의 숭배를 받으면서 비로소 분명히 드러난다.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하고, 많은 거미가 책에 많은 거미줄을 쳐두어야 한다. 좋은 독자는 책을 점점 좋게 만들어 주고, 좋은 적수는 책을 정화시켜 준다.

-맹세

나는 책을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작가의 책은 더 이상 읽지 않을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 사상이 부지불식간에 책으로 된 작가의 책만 읽을 생각이다.

-춤추는 것을 가르치는 책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윤리적인 것과 독창적인 것에 관해 마치 양자가 하나의 번덕이나 취향에 불과하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이 발끝으로 서서 내부의 흥 때문에 춤추지 않을 수 없을 때처럼, 생기발랄한 자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문필가들이 있다.

-위험한 책들

견해가 바뀌었다고 인간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바뀐 견해는 그의 인격이라는 별자리의 하나하나의 측면을 비추어 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견해들이 다른 별자리에 있을 때는 애매하고 알아채기 어려웠다.

-말문을 여는 자

많은 사람들이나 책들의 가치는 누구든 가슴속 깊이 숨겨둔 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성질에 있다. 이런 사람과 책은 말문을 여는 자이고 굳게 다문 이빨을 열게 만드는 쇠지레이다.

-4분의 3의 힘

작품이 건전한 인상을 주려면 작가는 기껏해야 자신이 지닌 역량의 4분의 3만 발휘하면 된다. 그가 자신의 극단적인 한계까지 갔을 때는 그의 작품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을 흥분시키고 긴장에 의해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우수한 작품은 뭔가 꾸밈없는 자연스러움이 있고, 초원의 암소처럼 누워 있다.

-허기진 사람을 물리치기

허기진 사람에겐 아주 훌륭한 음식도 가장 형편없는 음식과 다르지 않으며 조금도 더 낫지 않다. 취향이 좀 더 까다로운 예술가는 허기진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차가운 서적

좋은 사상은 좋은 사고에 담겨 있는 행복에 동감하는 독자를 고려한다. 차갑고 냉정해 보이는 책도 올바른 안목으로 보면 정신의 청명한 햇살이 감돌고 있으며, 영혼의 참다운 위안처럼 보이는 것이다.

-고전

모든 고전의 최대 약점은 그것이 그 저자의 모국어로 써져 있다는 점이다.

-좋지 않은 책

책이 펜과 잉크, 책상을 갈망해야 한다. 그러나 대개는 펜과 잉크, 책상이 책을 갈망한다. 그 때문에 지금 책다운 책이 별로 없는 것이다.

-위대한 작품과 위대한 신앙

저 사람은 위대한 작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동료는 이 작품에 대한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

-유럽의 서적

사상을 만드는 종류의 사상

사상가로서 괴테는 필요 이상으로 구름을 즐겨 껴안으며, 쇼펜하우어는 거의 끊임없이 사물들 자체가 아닌 비유들 사이를 걸음으로써 상응한 별을 받고 있다.

-정직한 책의 가치

정직한 책은 독자를 정직하게 만든다.

-가장 날카로운 비평

어떤 인간이나 책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평은 그 인간이나 책이 지닌 이상을 적시하는 일이다.

-독일 산문의 보배

괴테의 저서, 특히 괴테의 <에커만과의 대화>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독일 책이다.

<아침놀>

-경험의 바로 곁에서!

위대한 정신들도 다섯 손가락 너비의 경험밖에 하지 못한다. 경험의 바로 옆에서 그들의 생각은 멈춘다.

-과장된 문체

자신의 고조된 감정을 작품에 발산해서 흥분해하지 않고, 오히려 팽창된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예술가는 지나치게 허식을 부리는 자이다.

-고독한 사람들의 질투

사고적인 사람은 어떤 사물이든 그것에 대해 그들의 정신 속에서 전달 가능한 적절한 표현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만족하거나 거의 만족하게 된다. 그러면 그는 악마와도 화해한다!

고독한 사람들은 어떤 사물에 대해 잔잔한 감격과 잔잔한 고통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내적인 문제를 재기 발랄하고 찬란하게 전시하는 것을 싫어한다.

-사상가의 우회로

일부 사상가들의 경우 그들의 전체 사고 과정은 엄격하고 가차 없이 대담하며, 즉 때로는 자신에게 잔인하다. 그러나 세속적인 면에서 그들은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들은 호의적으로 망설이며 어떤 문제 주의를 열 번이나 돌지만, 결국 자신의 엄격한 길을 계속 간다. 그 길은 많은 굽이진 곳과 외딴 은둔처가 있는 강이다.

-사상가는 얼마만큼 자기의 적을 사랑하는가

그대의 사상에 반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제지하거나 그대에게 숨기지 마라! 그것을 서약하라! 그것은 사고의 드뭇가는 솔직성에 속한다. 그대는 매일 그대 자신을 상대로 원정도 나서야 한다. 승리와 정복한 성채는 더 이상 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이다. 하지만 그대의 패배 역시 더 이상 그대의 문제가 아니다.

-순수하게 만드는 눈

플라톤, 스피노자, 괴테의 경우처럼 정신이 성격이나 기질과 단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만 '천재'라 부를 수 있으리라. 이들의 경우 정신은 날개 달린 존재로서 성격이나 기질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있고, 그러면 성격과 기질의 훨씬 위에 우뚝 올라설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의 기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길에 가장 정신적이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보편적인,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주적인 표현을 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천재성에 대해 생생히 말했다. 이런 천재들은 자신의 위로 날아 오를 수 없었지만, 자기들이 어디로 날아갈지라도 자신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점이 그들의 위대성이고, 또 위대성일 수 있다.

천재라는 이름이 더 실제로 어울리는 다른 사람들은 순수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눈을 지니고 있다. 이 눈은 신을 바라보듯 세계를 바라보며 이 신을 사랑한다.

-우리, 정신의 비행자와 향해자들

멀리, 가장 멀리 날아가는 이 모든 대담한 새들-분명 그 새들은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해 어느 뜻이나 어느 보잘것없는 버려진 울크리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형편없는 거처에도 너무 고마워하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 앞에 탁 트인 엄청난 길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이 날 수 있는 만큼 멀리 날지 못했다고 추론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든 위대한 스승과 선구자들은 결국 멈춰 서 버리고 말았다.

다른 새들은 더 멀리 날 것이다! 그 새들은 우리가 날아가려 했던 곳으로 날아갈 것이다. 아직 온통 바다, 바다, 바다인 그곳으로!

우리는 대체 바다를 넘어 날아가려 하는가?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태양이 쬐던 그곳으로!

언젠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우리 역시 서쪽으로 향하면서, 인도에 도달하기를 희망했다고. 그러나 무한성에 좌초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고 그렇지 않은가, 나의 형제들이요? 그렇지 않은가?

<즐거운 학문>

사상, 사상은 우리 감각의 그림자이다 사상은 항상 감각보다 모호하고 공허하며 단순하다.

-번역

한 시대가 지닌 역사 감각의 수준의 이 시대가 번역을 어떻게 하고, 지나간 시대와 책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로 평가할 수 있다.

코르네유 시대의 프랑스인과 혁명 시대의 프랑스인 역시 고대 로마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고대 로마는 고대 그리스의 모든 훌륭하고 고귀한 문화에 얼마나 폭력적인 동시에 소박하게 손을 댔던가? 그것을 어떻게 로마의 현실로 옮겨 놓았던가?

-빛과 그림자

책과 글은 다양한 사상가들에게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상가는 빛들을 책에 모았는데, 그는 자신에 번쩍이 인식의 광선에서 빛을 재빨리 훑쳐내어 가져올 줄 알았던 것이다. 다른 사상가는 낮 동안 그의 영혼에 형성된 것으로부터 회색과 검은색의 잔상인 그림자만을 재현할 뿐이다.

-산문과 시

산문의 위대한 대가들은 항상 시인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정말이지 우리는 시와 대면할 때만 좋은 산문을 쓸 수 있다!

산문의 온갖 매력은 부단히 시에서 벗어나고 시와 모순된다는 데 있다.

모든 무미건조함과 냉정함은 사랑스러운 여신을 사랑스러운 절망에 빠뜨려야 한다.

전쟁은 모든 좋은 것의 아버지이고, 좋은 산문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들은 대체 왜 글을 쓰는가?

A: 나는 펜을 잉크에 적시고 생각하는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글쓰기에 화가 나거나 창피를 느낀다. 글쓰기는 내게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B: 그대는 왜 글을 쓰는가? 지금까지 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다른 수단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머슨

나는 어떤 책에서도 에머슨의 책에서만큼 내 집처럼 편안히 느낀 적이 없었다.

-저술가의 다변에 관해

분노에서 나온 다변이 있다. 루터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이런 현상은 쇼펜하우어에게서도 볼 수 있다. 칸트의 경우는 개념 형식을 많이 비추하고 있는 데서 생기는 다변이다 같은 문제를 늘 새롭게 다루는 것을 즐기는 데서 오는 다변은 몽테뉴에게서 발견된다. 고약한 천성에서 비롯되는 다변이 있다.

(훌륭한 말과 언어 형식을 즐기는 데서 나오는 다변. 감정의 소란과 혼란에서 내적 만족을 느끼는 다변)

-예술가로서의 독일인

그들의 경련은 단지 춤추고 싶다는 표시에 불과할 경우가 많다. 이 불쌍한 곰의 내면에는 은폐된 요정과 숲의 신들이 활기치고 있다. 때로는 보다 높은 신들이.

-낭만주의란 무엇인가?

모든 예술과 철학은 성장하고 투쟁하는 삶에 봉사하는 치료제이자 보조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예술과 철학은 언제나 고뇌와 고뇌하는 자를 전제로 한다.

고뇌하는 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삶의 충만함으로 고뇌하는 자들로, 이들은 디오니소스적 예술을 원하고, 또한 삶에 대한 비극적 견해와 통찰을 원한다. 다른 하나는 삶의 빈곤함으로 고뇌하는 자들로, 이들은 휴식, 고요함, 잔잔한 바다, 예술과 인식에 의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을 추구하거나 도취, 경련, 마비, 광기를 추가한다. 예술과 인식에서의 모든 낭만주의는 후자의 이중적 요구에 부합한다. 쇼펜하우어와 바그너

-이해의 문제에 대하여

글을 쓸 때 사람들은 이해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분명 이해되지 않기를 원하기도 한다.

저자는 '어느 누구나' 자기 책을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다.

보다 고귀한 정신과 취향을 지닌 사람은 모두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 할 때 청중도 선택한다.

그는 청중을 선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단기를 내린다. 문체의 보다 정교한 법칙은 여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

나의 경우는 무지에 의해서든 나의 쾌활한 기질에 의해서든 그대들에게 이해되는 것에 방해받고 싶지 않다.

적어도 갑작스럽게 얻을 수밖에 없는 특별히 수줍어하거나 민감한 진리, 불시에 붙잡거나 놓아줘야 하는 진리가 있다. 나의 간결한 문체는 다른 가치도 지니고 있다. 내가 몰두하는 그런 문제 내에서 나는 보다 간결하게 들리도록 많은 것을 간략하게 말해야 한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창조하는 자에 대하여

짜라투스트라는 하나의 새로운 진리를 보았다.

"한 줄기 빛이 나에게 떠올랐어. 나에게 가고자 하는 곳으로, 어깨에 메고 다녀야 하는 죽은 길벗, 시체가 아닌, 살아 있는 길벗이 필요해. 스스로 방향을 틀며,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따라오는 살아있는 길벗이 필요해……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보라! 그들은 누구를 가장 미워하는가? 그들의 가치 석판을 부수는 자, 파괴자, 범죄자를 가장 미워하지, 하지만 이 자는 창조하는 자이다…… 창조한 자가 찾는 것은 길벗이지, 시체나 가축 무리나 신자들이 아니다. 창조하는 자는 함께 창조하는 자들을, 새로운 석판에 새로운 가치를 적을 자들을 찾는다…… 창조하는 자는 자신의 낫을 갈 줄 아는 길벗들을 찾는다. 이 들은 선과 악을 파괴하는 자이자, 경멸하는 자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정확하고, 축제를 벌이는 자들이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나의 목표를 향해 가련다. 나는 머뭇거리고 게으른 자들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이 그들에게는 몰락의 길이 되리라!"

-읽기와 쓰기에 대하여

나는 모든 글 중에서 자신의 피로 쓴 것만 사랑한다. 피로 써라. 그러면 그대는 피가 정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남의 피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글을 읽는 게으름뱅이들을 미워한다.

누구나 읽는 것을 배우게 되면 결국에는 쓰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마저 썩고 말 것이다.

한때 정신은 신이었고, 그다음에는 인간이 되었다가, 이젠 천민으로 된다.

피와 잠언으로 글을 쓰는 자는 읽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암송되기를 바란다.

잠언은 봉우리가 되어야 한다.

희박하고 순수한 공기, 압박한 위협, 흥겨운 심술궂음으로 가득 찬 정신,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어울린다.

지혜는 우리에게 개치지 말고 조종하고, 난폭하게 행동하기를 원한다. 즉 지혜는 여인이라서 언제나 용사를 사랑한다.

우리 모두는 모두 짐을 지고 가는 귀여운 나귀들이 아닌가?

우리는 한 방울의 이슬만 떨어져도 파르르 떠는 장미 꽃봉오리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참으로 우리가 삶을 사랑하는 것은 삶에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사랑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삶에 호의적인 내가 보기에든 나비와 비눗방울이, 그리고 인간들 중에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가장 많이 이르는 것 같다. 이러한 가볍고 어리석고 우아하고 활동적인 조그만 영혼들이 파닥거리며 나는 것을 보노라면, 짜라투스트라 이에 유혹되어 눈물을 흘리고 노래를 부르게 된다.

사람들은 분노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죽인다. 자, 우리 종려의 영(제도와 관습, 법규와 도덕)을 죽이도록 하자꾸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밀란 쿤데라)

나는 걷는 법을 배웠고, 그런 이후로 자신을 내달리게 한다. 나는 날아다니는 법을 배웠고, 그런 이후로 누구에게 떠밀리지 않아도 술선해서 움직이게 되었다. 이제 나는 가벼워서, 이제 날아다니고, 이제 나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이제 어떤 신이 나로 인해 춤을 춘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학자들에 대하여

나는 학자들의 지위와 위엄을 누리며 잠자기보다는 오히려 황소가죽 위에서 잠자고 싶다.

나는 자신의 사상으로 너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학자들은 모든 일에 방관하는 자가 되려고 할 뿐,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계단에 앉기를 피한다.

마치 늪에서 생겨난 듯 이들의 지혜에서는 냄새날 때가 자주 있다. 참으로 나는 이들의 지혜에서 이미 개구리가 껍뻑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의 사상을 가지고 이들의 머리 위로 걸어 다닌다. 그리고 내가 자신의 실수들을 밟으며 걸어 다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이들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그들이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선악의 저편>

-고귀한 영혼

고귀한 영혼은 자신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다.

-독일인의 영혼

독일인의 영혼에는 여러 통로와 샅길들이 있다. 그 안에는 동굴, 은신처, 성의 지하 감옥이 있다.

독일인은 자신의 영혼을 질질 끌고 다닌다. 그는 자신이 체험하는 모든 것은 질질 끌고 간다.

-천재성을 지닌 사람

천재성을 지닌 사람은 최소한 감사하는 마음과 순수함이라는 두 가지를 아울러 갖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다.

-신이 작가가 되려고 했을 때

신이 작가가 되려고 했을 때 그리스어를 배웠다는 것과 그리고 좀 더 잘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미묘한 일이다.

-낙원이란

“인식의 나무가 자라는 곳이 항상 낙원이다.”태고의 뱀도 가장 최근의 뱀도 그렇게 말한다.

-깊이 있는 사상가

깊이 있는 사상가는 모두 오해받는 것보다 이해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오해받는 것에 괴로워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허영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해되는 것에 괴로워하는 것은 그의 마음과 공감이다. “아, 그대 들은 왜 나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독일 정신의 두 천재

영국인은 철학적 종족이 아니다. 베이컨은 철학적 정신 일반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고, 흄스, 흄, 로크는 한 세기 이상이나 ‘철학자’라는 개념을 육보이고 그 가치를 떨어뜨린 것을 의미한다. 칸트는 흄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 자신을 드높였다. 헤겔과 쇼펜하우어는 (괴테와 함께) 영국의 기계론적 세계 우매화와 투쟁하면서 일치단결했다.

-성서

성서는 지금까지 나온 가장 훌륭한 독일 서적이었다. 루터의 성서에 비하면 다른 모든 책은 거의 문헌에 불과하다.

-두 종류의 천재

천재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낱개 하고 낱개 만들려고 한다. 다른 하나는 수태해서 낱을 좋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재적인 민족 중에는 임신이라는 여성의 문제와 형성, 성숙, 완성이라는 은밀한 임무를 부여받은 민족이 있다. 그리스인은 이런 종류의 민족이고 프랑스인도 마찬가지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처럼 수태시켜야 하며 삶의 새로운 질서의 원인이 되는 민족도 있다.

-독일어 문제

독일어 문제가 음향이나 귀와 얼마나 관계없는지는 우리의 훌륭한 음악가들의 글이 형편없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독일인은 소리 내어 읽지 않고, 귀에 들리게 읽지 않으며, 다만 눈으로만 읽을 뿐이다. 그는 글을 읽을 때 자신의 귀를 서랍에 넣어 둔다.

고대인은 글을 읽을 때-이런 일은 매우 드물었다- 자기 자신에게 낭독해 주었다.

큰 소리로 읽는다는 것은 음의 온갖 팽창, 굴절, 전환과 템포의 변화를 가지고 읽는다는 것을 뜻한다.

당시에 문어체의 법칙은 구어체의 법칙과 똑같았다.

고대인이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복합문은 한 번의 호흡에 의해 통합되는 한 무엇보다도 생리적 전체이다. (두 번 팽창하고 두 번 하강하면서, 한 번의 호흡으로 이루어짐/ 메모스테네스와 키케로의 경우). 고대인은 호흡의 미덕을 자신의 훈련으로 평가할 줄 알았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사실 공개적이고 대중 예술 법칙을 따르는 연설의 장르만 있었을 뿐이다. 그것은 설교 단상에서 행해진다. 독일에서는 설교자만 그 음절과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의 문장이 어느 정도 고통치고, 튀어 오르고, 넘어지고, 달리고, 멈추는지 알고 있었다.

독일 산문의 걸작은 당연히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걸작이다.

<도덕의 계보학>

-쇼펜하우어와 음악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음악이란 다른 모든 예술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독립적인 예술 그 자체이며, 다른 예술치 현상의 모습을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 자체의 언어를 직접 심연에서 끄집어내어, 그것의 가장 고유하고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본원적인 계시로서 말하는 것이다.

음악가는 신탁을 전하는 사자, 사제, 아니 사제 이상의 존재, 사물들 ‘그 자체’에 대한 일종의 대변자, 저편 세계의 전화가 되었다.

-현대 서적의 고유한 특징

현대의 영혼이나 현대의 서적의 가장 고유한 특징을 이루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도덕적인 거짓 속에 아로새겨진 순진무함이다.

현대의 서적은 ~ 구토제로 쓰일 것이다. 그 이유는 도덕적인 달콤함과 허위, 곧잘 ‘이상주의’로 불리고 어쨌든 이상주의를 믿는 가장 내면화된 여성주의 때문이다.

-신약성서와 구약성서

나는 신약성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의 취향이 유별나다라는 사실에 나는 거의 불안하기까지 하다(2000년간의 취향이 나 반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나는 나의 악취미를 지킬 용기가 있다.

구약성서에 진정으로 경의를 표하라! 그 속에서 나는 위대한 인간들, 영웅적 광경, 지상에서 가장 드물게 보는 어떤 것, 그 한 마음의 비길 데 없는 소박함을 발견한다. 더구나 그 속에서 나는 한 민족을 발견한다. 반면에 신약성서에는 오직 사소 종파적인 야단법석, 오직 영혼의 로코코 풍, 오직 현란하고 모나며 이상한 것, 오직 비밀 집회의 공기만 발견한다.

<이 사람을 보라>

-서정시인 아니네

하인리히 하이네는 내게 서정 시인에 대한 최고의 개념을 갖게 해 주었다. ……그는 신적인 심술긋음을 지니고 있었으며, 나는 그것 없이는 완전성을 생각할 수 없다.

나는 인간과 종족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들이 신과 사티로스가 도저히 때려야 떨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할 줄 아는지에 따라 평가한다.

-자유정신

자유정신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시 소유하는 자유롭게 된 정신을 말한다.

-나의 문체기법

어떤 상태를, 기호의 속도를 포함하여 기호를 통한 파토스의 내적 긴장을 전달하는 것이 모든 문체의 의미다. 나의 경우 1적 상태가 무척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게는 문체에 대한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인간이 다룬 것 중 가장 다양한 문체 기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내적인 상태를 실제로 전달하고, 기호와 기호의 속도, 몸짓-복합문의 모든 법칙은 몸짓의 기법이다-을 제대로 처리하는 문체는 모두 훌륭하다. 나의 본능은 이런 경우 실수하는 법이 없다.

훌륭한 문체 그 자체는 가령 '아름다움 그 자체', '선 그 자체', '물 자체', 처럼 순수한 어리석음이자, 단순한 '이상주의'에 불과하다. …… 문체는 여전히 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문체는 동일한 파토스를 지닐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존제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심중을 털어놓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위대한 리듬 기법, 복합문의 위대한 문체가 송고하고도 초인간적인 인간의 열정의 엄청난 상승과 하강을 표현하기 위한 :이라는 사실이 나에 의해 비로소 발견되었다.

-사고 능력을 잃은 학자

기본적으로 서적을 그냥 '뒤적이는' 학자, 하루에 200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 문헌학자는 결국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 잃어버리고 만다. …… 결국 그는 반응만 할 뿐이다.

-작가로서의 나의 특권

몇몇 개별적 경우에는 내 작품에 익숙해짐으로써 취향을 완전히 '망쳐 버린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내 작품에 익숙해지면 다른 작품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다.

(끝)